



남광토건, 하우스토리

한계에 도전하는 정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2002년 워크 아웃을 졸업한 남광토건이 주택 등 건축과 토목 사업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3조원 이상 수주해 놓은 남광토건은 올해 5000가구 이상 공급 물량을 잡고 있다. 국내 시장 뿐 아니라 앙골라를 비롯하여 베트남, 오만, 카자흐스탄 등 해외시장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남광토건의 올해 건설명가의 재현이 주목된다.

에디터 | 김대환 · 자료 제공 | 남광토건 홍보팀



양골라 컨벤션 센터



광진 하수처리 시설 기념



광진 하수처리 센터

올 해로 60주년을 맞이하는 남광토건은 광복 직후인 1947년 7월 7일 부산에서 '남광토건사'란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의 혼란기 동안 피폐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재건 사업을 통해 기초를 다졌고, 그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토목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거듭해 1954년 '남광토건주식회사'라는 법인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부산과 경남을 주무대로 사업을 전개하던 남광토건은 이후 1964년 본사를 서울(중구 수표동)로 이전하였고 사업 분야 역시 건축과 토목, 플랜트 등 건설 전부분으로 확대시키면서 대형 건설사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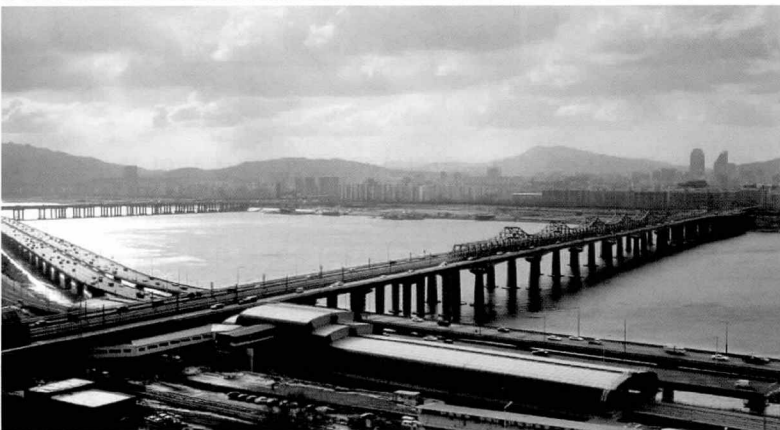
특히 1974년 5월 필리핀에 첫 진출한 이래 사우디, 이라크, 요르단 등 중동무대까지 해외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성장을 이어 나갔다. 이런 노력으로 뉴포이뎀(필리핀), 코타바토항만(필리핀), 쥬베일 새수로(사우디), 마리스담(필리핀), 샤프와 상하수도처리시설(사우디), 양부하수종말처리장(사우디), 키르쿱-하다다간 철도(이라크), 암만상수

도(요르단), 마닐라 북부도로(필리핀), 등 38건 총 15억 불 규모의 해외공사를 수행하여 1982년 「해외건설 10억불탑」을 수상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타업체들이 기피하는 고난이도의 공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수행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77년 국내 도급시공능력 7위의 건설사로 성장했다.

성장일로의 남광토건에도 시련의 시기는 있었다. 하지만 남광토건은 한계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인식하는 기업정신으로 시련을 극복해갔다. 먼저 80년대 초반 해외사업의 무리한 확장으로 부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86년에 쌍용그룹으로 편입되었다. 그 시기에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한강 하저터널인 지하철 5호선 공사를 비롯하여 서울지하철 2~8호선 공사, Precast-Segment 공법을 도입한 강변북로 등 고난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요구하는 대형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토목분야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이어 갔다. 또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주택사업부문



Anniversary
남광토건60주년



에 본격적으로 진출(95년), 5만 여세대의 “쌍용 스위트홈”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주택부문에서도 빠른 성장을 이루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97년 국가경제가 IMF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동성 악화로 98년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고의 지구노력을 통해 98년부터 2002년까지 철도청 발주공사 수주액 1위 (9,876억) 업체로 다시 한번 토목분야에 독보적인 명성을 입증했고 주택사업부문의 분양성공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등 재무구조개선을 통하여 2002년 4월 워크아웃을 건설업계 최초로 졸업하였다.

건축미와 편리함, 하우스토리

그간의 대내외적인 시련과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남광토건은 2005년에 접어들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먼저 새로운 C.I.를 선포하였고 「설계가 다른 아파트」라는 컨셉으로 건축미학과 편리함을 갖춘 자연친화적 아파트 브랜드(B.I) ‘하우스토리’를 개발해 주택사업 비중을 강화했다. 상품개발, 공사, 준공, 사전(사후 관리)의 전 과정에 내(외부 설계, 인테리어, 구조, 친환경 엔지니어, 환경색채 등의 전문가들이 ‘N 솔루션’ 팀을 통해 고객 만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어린이 가구 전문 디자이너 ‘조아라’가 인테리어 설계를 맡은 ‘남구미 하우스토

리’와 ‘동창원 하우스토리’는 어린이용 전용 가구를 설치하고, IQ(머리가 좋아지는 방), EQ(감성지수가 좋아지는 방), CQ(창의력이 쑥쑥 올라가는 방), SQ(사회성이 높아지는 방)로 실내 마감을 달리 제안하여 호평을 받았고 ‘꽁진 하우스토리’의 설계는 타워패리스를 설계한 인테리어 전문가 최시영 씨가 맡아 맞춤형 설계를 선보이면서 브랜드 런칭 후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이다. 또한 지방아파트 분양 사업을 위해서도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캐릭터 아파트를 개발하여 바다와 유람선의 이미지를 단지 내 곳곳에 배치한 최초의 캐릭터 아파트를 ‘포항양덕 하우스토리’를 통해 선보였다. 그 결과 주택사업에서는 재개발 사업부 신설 후 1년 반 동안 재개발 사업 수주액이 3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국내에서의 성공적인 사업성과는 해외사업에도 탄력을 더했다. 2006년 앙골라 컨벤션센터를 8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완공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세계무대에 과시하였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광토건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었고 그 결과 앙골라의 소나골 HQ빌딩, Three Tower, 무탐바 연구소, 탈라토나 컨벤션 호텔, 앙골라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을 추가로 수주하면서 앙골라에서만 5000억 원이 넘는 수주액을 기록하는 기업을 토했다.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 남광토건

이제 남광토건은 창립 60주년이 되는 2007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옛 명성을 되찾고 21세기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자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양골라 등 수익이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토목 부문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축 부문에서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하는 등 3가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장 원동력으로 삼아 입지를 확실히 할 계획이다.

사내적으로도 지난 2004년에 선포된 「21세기 건설문화를 선도하는 남광토건 창조」라는 비전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책임경영체제의 구축, 안정적 수주기반 조성, 핵심경쟁력 확보,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세부 전략 실행을 위해 전반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지속함으로써 2010년까지 「연간 수주 1조원, 매출 1조원, 영업이익률 15%」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60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대한민국의 건설을 이끌었던 자부심과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계기로 삼았던 열정이 있기에 남광토건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도전과 성공의 신화가 더욱 기대된다. ☺

